

민관협업으로 지역문제 해결한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
올해 신규 참여기관 6곳과 협약
시민 참여 민·관 거버넌스
탄소중립 방안 등 의제 해결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들이 지난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1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실행의제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1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신규로 참여한 추진기관 6곳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실행의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민관 거버넌스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들이 함께 지역문제와 탄소중립 방안 등 국가적 의제를 해결하는 협업형 문제해결 기구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2019년 7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12곳을 포함해 민·관·공기업 등 36개 기관이 참여한 추진위원회로 출범했으며, 올해 참여한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 등을 포함해 총 51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온라인 의제 제안, 협업기관 제안, 사회공헌 매칭 제안, 현장탐방 등 다양한 경로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받아 의제를 실행해왔다.

2019년에는 15개 실행의제를 발굴해 '광주형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프로젝트'와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 시범사업'이 전국 공동의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발굴한 25개 실행의제 중 '기후위기대응 시민실천'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의제 등이 전국 공동의제로 선정돼 전국화를 선도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지역아동센터 소독, 방역 ▲사랑의 안심마스크 제작 ▲농산물꾸러미 전달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긴급 지원의제를 선정하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 우선 지원하는 등 선제 대응했다.

올해 제안된 의제는 18개로 ▲탄소중립 전환! 마을이 변해야 도시가 바뀐다 ▲에너지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그린뉴딜 일자리 육성 ▲RE 100 시민클

럽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안전한 전운도로 설치를 위한 조려 주민발의 ▲시민의 힘으로 불법주정차 없는 도로만들기 ▲채식인들도 불편하지 않는 도시(기후마스터도시) ▲코로나19 취약계층 아동 학습지원을 위한 한전 대학생 교육봉사단 ▲은둔형 청년들의 독립을 위한 주거 및 직업장 지원 ▲아동 돌봄 공백 해소와 50+세대 일자리 연계 마을돌봄센터 모델만들기 등으로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매칭된 의제들이 광주의 변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김일용 시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10년 넘게 장기표류하고 있거나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핵심 현안을 민관협치로 해결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추진할 의제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복지플랫폼 홈페이지 명칭 찾습니다”

광주시, 14~23일 공모 접수

광주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광주복지플랫폼’의 홈페이지 명칭을 14일부터 23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칭은 ‘광주 복지플랫폼’ 홈페이지를 알기 쉽고 친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30일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을 포함한 당선작을 6개 선정하고 7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작 중 최우수상 1명에는 30만원, 우수상 2명에는 각 15만원, 장려상 3명에는 각 10만원 상당의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시의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대해 쉽게 찾고 기억할 수 있는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은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 지원, 서비스, 관련 통계 등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사업 중 하나로, 복지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8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참여자 모집

16일부터... 19~39세 무주택자
최대 7천만원... 이자 2% 지원

광주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1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이면 일정 자격요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무주택자,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는 5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주택은 광주시 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7000만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에서 2%를 지원하고 선정자는 연 0.5%를 부담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 정책 기수혜자는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접수 순으로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가 진행되며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내 은행 대출 실행자에 한해 이자지원이 확정된다.

김영선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송정역 주차빌딩 21일 착공... 401면→1580면으로 확충

코레일 370억 들여 7층 규모

인근 6곳에 임시주차장 마련

내년 10월까지 대중교통 이용 당부

광주 송정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덜어줄 주차빌딩 신축 공사가 시작된다. 광주시는 완공 때까지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겠다고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자가 차량 이용자는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1일 현 송정역 부지에서 주차빌딩을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은 37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건축면적 6839㎡, 연면적 4만535㎡ 규모로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주차빌딩은 현재(401대)의 4배 가까운 1580대를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기간 주차 불편, 교통 혼잡이 불가피해 광주시, 코레일, 광산구, 경찰 등은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공사로 이용이 어려운 현 주차장을 대체해 송정역 인근 6곳에 717면 임시 주차



광주송정역 주차장에 주차빌딩 신축에 따른 임시주차장 운영 안내

바닥에 임시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컬러 유도선을 설치했으며 승차권 예매 앱에는 위치, 주차 가능 대수 등 안내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그동안 송정역은 이용객 대비 넉넉하지 못한 주차 공간 때문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2019년 12월 기준 송정역의 주말 평균 이용객은 2만명 안팎으로, 울산역(1만 7000여명·주차장 1032면)보다 많은데도 주차장 규모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일 이용객 규모가 비슷한 오송역은 주차장 1989면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송정역 일대에는 사설 주차장까지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송정역 이용객은 2015년 4월 KTX와 2016년 12월 수서SRT 개통으로 주말(금,토,일) 기준 1일 평균 2015년 5913명에서 2016년 1만6164명, 2017년 2만2504명, 2018년 2만4507명, 2019년 2만564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국도교통부 등을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해 송정역 주변의 열악한 주차 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 기간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 역 방문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 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축산물검사 강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차박, 캠핑(캠핑+피크닉) 등 국내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여름철 축산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일부터 7월31일까지 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생산단계인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철저한 생체-해체-정밀검사를 통해 질병 발견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도축장 위생관리 지도 등을 강화한다.

도축 지육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검사와 미생물 검사도 확대한다. 항생제와 호르몬, 농약류 등 180종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검사를 매주 15건에서 30건으로 확대하고, 작업장 위생상태 파악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반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도 기존 매주 48건에서 96건으로 늘려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즉시

도축장에 대한 위생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유통단계 축산물에 대해서는 시와 5개 자치구가 협조해 여름철 축산물 취약분야 집중 수거 검사를 한다. 야외에서 바로 조리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에 대한 보존료 과다사용 여부와 미생물 오염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6월부터 8월 사이 도축된 지육 미생물 검사에서 평소보다 소 57.1% 돼지 61.0%씩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유통축산가공품 총 7290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8건 중 6~8월에만 10건(55.6%)으로 식중독균 등 미생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